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당회: 1부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

2 예배: 다음주 예배 설교는 정훈 목사(여천교회, 전남 여수 소재)가 전합니다.

3 모임: 다음주 1부 예배 후 바자회 준비를 위한 각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4 감사: 오늘 교제를 위한 떡은 김철재, 문일숙 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5 도움: JP 사인이 필요하신 성도는 남영수 집사(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6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7 월례회: 1남,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 친교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교역자소식

이태한 목사: 은혜중에 일정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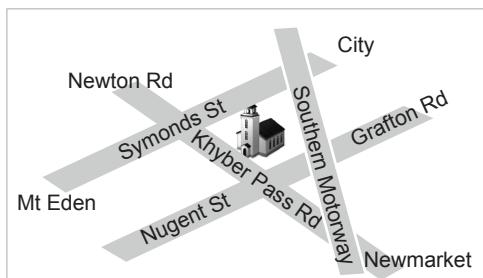


밀알장애인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6월 3일

14권 23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나비야 나비야 - 이경자 원사

“엄마 우리 애들 좀 부탁해요, 내일 오후 늦게 돌아올 것 같아서요. 먹이는 냉장고에 뒀어요.” 산책하고 돌아오니 급하게 쓴 메모가 냉장고 문에 붙어있다. 그 아이들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속에 열심히 스완 플랜트 잎들을 깎아 먹고 있다. 나비 애벌레들이다. 크고 작은 녀석들이 죽히 싫여 미리는 넘는 것 같다. 큰 녀석들은 지금 한창 먹을 때인데, 이 먹이 가지고 될까 몰라 하면서 먹이를 부추간수하듯 도르르 신문지에 말아서 비닐 봉투에 담아 야채칸에 넣어둔다.

딸아이와 나는 몇 년 전부터 나비를 길러 날려보낸다. 나비들은 봄이 되면 날아와 스완 플랜트 잎 뒤쪽에 좁쌀알보다 더 작은 알들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날아가 버린다. 옹색한 뒤틀 구석에 있는 작고 볼품없는 나무를 용케도 찾아온다. 며칠 후면 잘 보이지도 않는 애벌레들이 알에서 깨어나 제가 나온 알껍데기로 영양을 섭취하고, 성충이 될 때까지 그 나뭇잎을 먹고 자란다. 흰 줄과 검은 줄이 바코드처럼 생긴 애벌레들은 5~6cm까지 자라게 된다. 말벌 등 천적들이 이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애벌레를 격리시켜 잎사귀를 뜯어 먹이며 키우기 시작한 것도 애벌레가 사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을 보고 난 어느 날 이후였지 싶다. 애벌레는 자라며 4~5번의 허물을 벗는다. 그땐 잘 움직이지 않고 또 먹지도 않는다. 야생에선 백 개의 알 중 겨우 두 마리 만이 나비가 된다는데 오늘은 늦둥이로 낳아 놓고 간 올해의 마지막 나비 다섯 마리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변데기에서 깨어났다. 꾸 끼는 원피스 뒷 지퍼를 열듯, 금빛 띠를 두른 고운 연둣빛 번데기에서 어렵게 벗어난 나비는 모양도 색깔도 분명하고 건강한 호랑나비다. 빨랫줄에 널려있는 하얀 침대 시트에 붙여놓고 구겨진 날개가 펴지고 마를 때까지 나는 주변을 서성인다. 천천히 접었다 펴는 날갯짓에 성긴 초가을 햅볕이 잘게 흩어진다.

얼마후 한 마리씩 푸른 하늘 속으로 한 점이 되어 떠나간다. 그 미물의 비상 앞에 언제나 그렇듯 가슴이 벅차오르며 따라 날아오르고 싶어진다. 먹이사슬의 끝자리에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사랑받는 나비. 꿈틀대는 애벌레의 촉감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나비가 된다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다. 스스로 앞에서 깨어나고 몇 번이고 허물을 벗는 애벌레, 명주 올보다 더 가는 실을 입에서 뽑아 스스로 실죽지 않게 지탱하는 지혜가, 더 높은 곳을 찾아 변데기로 매달리는 나비, 화려한 비상 그들에겐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오묘한 섭리 앞에 때론 숙연해지기도 한다. 많은 죄와 허물에서 깨어나지도 못하면서 나비가 푸른 하늘을 날듯,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 그래도 나비를 키워 날려보내는 마음의 여유가, 또 이국에서의 내 노년의 삶이 그렇게 강퍅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요한일서 5:6-8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79장
* 성시교독	137. 삼위일체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52장
대표기도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9:1-9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다메섹 길가에서
찬송	436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교회일정

삼위일체 주일:
6월 3일 (주일)

성찬 주일
6월 24일 (주일)

이삭줍기 주일:
6월 24일 (주일)

공동체 주관 예배:
6월 28일 (수)

◎ 6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이광희/이규임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손조훈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이순옥 집사

다음 주일 1부: 고성일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후임 집사

6월 13일 수요기도: 김광자 집사

6월 13일 애찬기도: 이성희 집사

6월 17일 1부: 박덕철 집사

6월 17일 2부: 박형길 청년

금주의 기도제목

- 국내: 키위들이 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깨닫도록, 쇠퇴해가는 뉴질랜드 신앙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특히 2세들의 신앙 훈련에 다음 세대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한인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민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잘 정착하도록.
- 교회: 현실의 어려움이 신앙을 등한시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를 심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성도가 되어 더 건강한 갈보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전 건물 구입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한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풍성하도록.
- 국외: 현재 북한에는 5-7만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죄목으로 정치범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북한의 체제 변화가 북한 선교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김정은이 기독교에 대한 펜박을 멈추고 폭압 정치가 아닌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총회와 한국 방문 후기 - 이태한 목사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총회 참석과 한국 방문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기 전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부탁을 드렸듯이 비행기를 타면 우선 안압으로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프고 잠시도 잘 수 없는 성격이라 비행기로 하는 장거리 여행은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미 하루 전날부터 여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두 한두 번은 경험들 하셨겠지만 좁은 공간 안에 12시간가량 앉아서 가는 괴로움은 고국을 찾는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눈가리개를 쓰고 잠을 청해 보지만 그 잠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입, 한쪽으로 기울어진 고개는 민망스럽기보다 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푸념을 혼자서 늘어놓습니다. 식사를 받던 중 기류 변화 기체가 심하게 요동하자 여기저기에서 간간이 마음 졸이는 소리가 들리지만 식사 반입을 중단시키는 안내 방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목사보다도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긴 여행 끝에 익숙한 한국에 도착하여 기다리던 매형과 해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있어서 두문불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약속 시간이 되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요, 모든 후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 주셨고 사모님과 더불어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 짧은 시간은 마치 산림욕을 하는 듯 여독을 씻어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다니 새삼 감탄이 절로 나왔고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하며 세우고 가꾼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대선배 앞에서 설교 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 아무래도 횡설수설 한 것 같아 괜히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았는지 염려스러웠지만 이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하시는 듯 은혜스러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얼굴에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김포 매형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야 "우리 갈보리 교회도 수요예배를 드렸겠구나!" 뒤늦게 생각이 난 못난 목사였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